

---

# 2023년 제2회 금융안정포럼 개최 결과

---

2023. 7.

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



<b>I. 개 요</b> .....	<b>1</b>
<b>II. 주제 발표 내용</b> .....	<b>2</b>
1.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	
2.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	
<b>III. 주요 토론 내용</b> .....	<b>4</b>

# I. 개 요

□ 2023년 제2회 금융안정포럼을 다음과 같이 실시

- 일 시 : 2023. 7. 19.(수) 16:00 ~ 18:00
- 장 소 : 한국은행 본관 2층 대회의실
- 내 용 : 시연 및 주제 발표 후 토론 실시
  - (1)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시연(데이터서비스팀 안상기 팀장)
  - (2)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(비은행리스크팀 나성오 차장)
  - (3)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(시스템리스크팀 임호성 팀장)
- 참 석 자 : 학계·감독당국·금융계 전문가, 당행 직원 등 40명

## 금융안정포럼 참석자

기 관	소 속	직 · 성 명	기 관	소 속	직 · 성 명
학 계	가 톨 릭 대	허 인	학 계 (15명)	인 하 대	한 재 준
	경 제 학 과	교 수		글로벌금융학과	교 수
	고 려 대	신 관 호		한 국 외 대	최 승 필
	경 제 학 과	교 수		법학전문대학원	교 수
	동 국 대	지 인 엽		한 양 대	유 혜 미
	동 경 제 학 과	교 수	동 경 제 금 융 대 학	교 수	
	동 국 대	현 정 환	한 양 대	주 동 헌	
	국 제 통 상 학 과	교 수	동 경 제 학 부	교 수	
	상 명 대	서 은 숙	국 민 대	남 재 현	
	경 제 학 과	교 수	동 경 제 학 과	교 수	
금 융 계 (4명)	서 강 대	허 준 영	금 융 계 (4명)	IBK기업은행	성 병 희
	경 제 학 부	교 수		경제연구소	성 본 부 장
	서 울 대	정 혁 수		S C 제 일 은 행	박 종 훈
	국 제 대 학 원	교 수		우 리 금 융	송 태 정
성 균 관 대	이 근 영	한국은행 (21명)	경 영 연 구 소	부 소 장	
경 제 학 과	교 수		디 지 털 금 융	문 영 배	
수 원 대	조 기 준	한국은행	금 융 안 정 국	김인구 국장, 박구도 부장 등	
인 하 대	서 현 덕	한국은행	금 융 안 정 국	김인구 국장, 박구도 부장 등	
경 제 학 과	교 수	한국은행	금 융 안 정 국	김인구 국장, 박구도 부장 등	

## Ⅱ. 주제 발표 내용

---

※ 주제 발표는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<현안2>(p.111)와 <현안3>(p.122)을 요약한 것으로,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

### [주제 1]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

- ① (현황) 2023년 1/4분기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은 1,137.7조원(농수산물조합 559.1, 새마을금고 294.2, 신협 149.3, 저축은행 135.1)으로,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 비중(22.0%)이 꾸준히 증가
- ② (잠재리스크) 높은 금리 수준,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연체율 상승,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신용,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 우려 확대
  - (신용리스크) 부동산 관련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, 저축은행의 경우 청년층 중심으로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확대
  - (시장리스크) 코로나19 기간중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나, 총자산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금리상승 관련 손실은 미미
    - ⇒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, Severe 시나리오 하에서도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고, 신용 및 시장 리스크 손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평가
  - (유동성리스크) 비대면 수신 규모가 확대되고 퇴직연금 비중이 증가하여, 예금 유출에 따른 리스크에 보다 유의할 필요
- ③ (대응 여력) SVB 사태 등 대규모 예금인출 상황 발생시 중앙회의 회원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
- ④ (평가 및 시사점)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낮은 상호연계성,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 등 고려하면 대규모 손실 및 예금인출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
  - ⇒ 중앙은행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, 모니터링 수단 확충 및 유동성 공급 체계 모색이 필요

## [주제 2]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

① (건전성 지표와 잠재 리스크간 괴리) **코로나19 기간중 기업여신의 잠재 리스크가 높아졌음**에도 불구하고, 저금리 기조, 정부 금융지원, 금융기관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**건전성 지표는 양호**

② (위험 반영 가산금리) 2020~21년중 **금융지원** 등이 **없었을 경우** 적용되었을 개별 기업의 **이자율**을 **추정\***하여 이자보상 능력이 **과대평가**되었는지 **여부**를 평가

\* 개별기업의 연도별 가산금리(차입금평균이자율 - 준거시장금리)를 팬데믹 기간과 이전 기간을 비교하고, 장기평균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각 기업 이자보상배율을 다시 계산하고 취약기업(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)을 식별

○ **2020~21년**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**실제 위험 대비 낮은 가산금리**(장기 -1.06%p, 단기 -0.84%p)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

**잠재위험을 반영한** 장기 평균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동 기간중 **취약 기업 여신 비중이 상승**

— 규모별로는, 동 기간중 **중소기업의 가산금리 하락폭** 및 **취약 기업 여신 비중 상승폭**이 대기업보다 **더 크게** 나타남

③ (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) 기업부문의 **잠재 신용위험이 현실화**될 경우 대출 부도율 상승 등 국내은행의 **건전성 악화**가 예상되며,

이에 더해 경기둔화,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**충격이 추가로 발생**하면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증가하고 **은행 신용손실이 확대**

○ 테스트 결과,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**부도율 상승**(0.24~0.65%p), **예상 손실**(1.5~4.5조원) 및 **예상외손실**(3.4~8.7조원) **증가** 등으로 인해 BIS **자본비율이 하락**(0.5~1.2%p)하는 등 **복원력이 저하**될 것으로 평가

④ (시사점) 향후 기업의 잠재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 증대,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하여 국내은행의 **대손충당금** 및 **자본금 적립\***을 **확대**할 필요

\* 감독당국의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은 기업여신 취약성 완화 및 잠재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

### Ⅲ. 주요 토론 내용

---

◇ 참석자들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, 기업 부문 신용리스크 평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

#### 1.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잠재리스크

□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분석이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

○ (분석범위)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외에 부동산 PF 관련 취약성이 높은 증권회사 등 여타 비은행업권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

→ 한국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취약성에 대한 분석\*을 실시한 바 있으며,

금번에는 실리콘밸리은행(SVB) 사태와 같은 급격한 예금인출(Bank-run)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음

\* “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”(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(2022년 9월) 보도자료)

○ (스트레스 테스트) 모든 비은행업권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여 복원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는데, 업권 평균이 아니라 개별 기관을 테스트하여 꼬리 위험(tail risk)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

→ 한국은행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(SAMP)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,

그 결과를 합산하여 업권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개별 기관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음

## 2.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평가

□ **팬데믹 기간중**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**이연된 기업부문 잠재 신용리스크**가 최근 **현실화**되는 모습을 우려하였으며,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**관련 영향**을 보다 면밀하게 **분석할 필요**가 있음을 강조

○ **(리스크 현실화)** 일부 은행의 자체 모형(Bayesian VAR) 분석 결과 **금리가 연체율에 유의한 영향**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, 시장금리 상승이 **시차를 두고 연체율에 반영**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체율 동향을 **모니터링**할 필요

○ **(스트레스 테스트)** 테스트에서 **충분히 심각하지만 발생가능한** (extreme but plausible) **시나리오**를 **설정**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

→ **한국은행**은 금번 분석에서 소수의 변수에 대해 충격 강도를 여러 단계로 높여가며 그 영향을 평가하는 **민감도 분석**(sensitivity analysis)을 실시함으로써 **충분히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**하였음

○ **(분석범위)** 금번에 분석한 외감기업 외에 **비외감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** 등이 충격에 상대적으로 **더 취약**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**분석**을 **추가**할 필요

→ **한국은행**에서는 **분석 목적, 데이터 가용성, 속도성**을 고려하여 **기업 관련 리스크 분석 범위**를 단계적으로 **구분\***하고 있으며,

금번에는 2022년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외감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**추후 취약부문**에 대한 **추가 분석**도 **진행**할 계획

\* ① 상장기업(분기, 2~3천개 기업), ② 외감기업(연간, 2~3만개 기업), ③ 기업경영분석(연간, 약 80만개 기업)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

### 3. 금융기관 규제 관련 제언

- 금번 분석들에서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① **중앙은행의 비은행** 금융기관 **정보접근성** 확대, ② **경기대응완충자본** 부과 등에 대한 포럼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
  - (비은행업권간 규제감독 차이) **새마을금고**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, 저축은행, 상호금융조합 등 **여타 비은행예금취급기관**(금융위원회 감독)과 달리 **규제 및 감독 수준에 차이가 발생**하였을 **가능성에 유의할 필요**
  - (경기대응완충자본) 통상 경기과열로 인해 신용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**경기대응완충자본**(CCyB; Counter-Cyclical Buffer)을 **경기둔화**로 기업여신의 잠재 **신용리스크**가 **현실화**되는 시기에 **부과**하는 것은 제도의 **본래 목적과 상충**되는 것으로 보임
- **경기대응완충자본**의 기본 도입 취지가 신용의 **경기순응성 완화**인 것은 분명하나,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**경기중립 CCyB**를 0이 아닌 **양(+)**의 비율로 **설정·운영**함으로써 위기 시 동 버퍼를 **조정**하여 은행들의 **위기대응 여력**을 **제공**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